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7년 12월

전망과 정책과제

제 1 장	국내경제	5
제 2 장	해외경제	19
제 3 장	1997/1998년 경제전망	27
제 4 장	IMF합의하의 경제운영 및 정책방향	35

부록

경제정책정보	59
주요경제통계	62

한국경제연구원

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2. 소비
3. 투자
4. 대외거래
5. 물가
6. 통화금융

제2장 해외경제

1. 성장 및 교역
2. 원유 및 원자재가격
3. 주요통화 환율

제3장 1997/1998년 경제전망

1. 성장
2. 물가
3. 국제수지
4. 금리 및 환율

제4장 IMF합의하의 경제운영 및 정책방향

- | | |
|----------|--------------|
| 1. 거시경제 | 7. 대기업정책 |
| 2. 통화·금리 | 8. 무역정책 |
| 3. 금융시장 | 9. 재정·조세 |
| 4. 금융산업 | 10. 고용 |
| 5. 외환시장 | 11. 정부의 대응자세 |
| 6. 산업구조 | |

제 1 장

국내경제

1. 경기 및 성장

- 3/4분기중 국내총생산은 수출물량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3%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은 크게 부진한 모습.
- 생산면에서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화학공업 생산(10.9%)이 비교적 높은 증가.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생산은 작년 연간증가율(7.4%)보다 높은 8.1% 증가.
- 반면 수요면에서 민간소비의 경우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실질소득의 감소, 고용불안으로 5.0%증가에 그치고 고정투자는 건설투자(2.1%), 설비투자(-13.0%)가 모두 부진하여 4.7%감소.

전망과 정책과제

〈표 1〉 국내총생산(1990년 불변가격기준)

단위 : 전년동기비(%)

	1995년	1996년	1997년 1/4	2/4	3/4
국내총생산(GDP)	8.9	7.1	5.5	6.4	6.3
제조업	10.5	7.4	5.7	7.6	8.1
중화학공업	14.6	10.5	8.7	11.2	10.9
경공업	-0.7	-2.6	-5.0	-4.8	-1.5
민간소비	8.3	6.9	4.4	4.9	5.0
고정투자	11.7	7.1	-1.2	-0.1	-4.7
건설투자	8.7	6.3	-0.9	1.1	2.1
설비투자	15.8	8.2	-1.6	-1.5	-13.0
재화와 용역의 수출	24.0	14.1	15.5	24.6	29.0
재화와 용역의 수입	22.0	14.8	8.4	7.9	5.4

자료 : 한국은행

- 4/4분기중 수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수부문의 부진은 계속되고 있고 중화학부문과 경공업부문의 양극화현상도 계속됨.
- 10월중 중화학공업의 생산은 반도체(108.4%), 기타 운송장비(27.7%), 석유정제(18.7%)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비 18.0% 증가하였으나 경공업생산은 섬유(-6.6%), 의복 및 모피(-13.7)의 부진으로 4.0% 감소.
- 수출용 출하의 경우 상반기 14.3%, 3/4분기 27.8% 그리고 10월에는 33.1%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내수용출하는 10월중 마이너스 증가율(-0.1%)을 보임.

〈표 2〉 산업생산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1995년	1996년	1997년 상반기	3/4	9월	10월
산업생산	11.9	8.4	7.7	9.4	10.1	12.2
중화학	15.8	12.0	12.6	14.7	15.2	18.0
경공업	0.9	-1.0	-5.6	-4.8	-4.3	-4.0
출하	12.6	8.7	5.7	9.2	9.2	8.9
내수	10.0	7.0	2.7	2.5	2.5	-0.1
수출	20.4	13.7	14.3	27.8	27.2	33.1
재고	14.9	16.4	13.1	4.8	4.8	8.0
평균가동률	82.4	81.4	79.6	79.5	79.2	79.3
생산능력	9.3	10.0	9.6	10.0	10.4	12.2

자료 : 통계청

- 10월중 생산자제품재고도 전년동월비 8.0% 증가, 금년 8월 이후 한자리수의 증가율에 그쳤으나 반도체(57.2%), 음향통신기기(40.1%)의 재고 증가율은 아직도 높은 수준임.
- 수출의 경우도 물량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기업채산성 악화 지속.
- 10월중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보다 0.8% 증가하여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였으나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보합세를 유지.

전망과 정책과제

〈표 3〉 경기종합지수

(1990=100)

	1997.3	4	5	6	7	8	9	10
선행종합지수	180.8	109.9	110.8	111.5	112.5	114.0	114.6	115.5
동행종합지수	107.2	108.1	108.4	108.7	109.0	109.8	110.4	110.9
순환변동치	100.0	100.4	100.3	100.0	99.9	100.1	100.2	100.2

자료 : 통계청

2. 소비

- 3/4분기중 민간소비는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둔화된 반면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증가로 전분기와 비슷한 5.0% 증가.
- 정부소비지출은 정부의 경상경비 감축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기능확대 등으로 물건비 등을 중심으로 7.0% 증가.

〈표 4〉 소비지출 추이(1990년 불변가격기준)

단위 : 전년동기대비(%)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최종소비지출	7.2	6.9	4.4	5.3	5.3
민간소비	8.3	6.9	4.4	4.9	5.0
내구재	11.6	7.3	-2.1	5.3	5.6
준내구재	9.3	6.7	5.0	5.0	4.2
비내구재	6.0	4.2	3.1	2.9	3.4
서비스	8.4	8.3	6.1	6.4	6.5
정부소비	1.0	7.1	4.6	7.7	7.0

자료 : 한국은행

- 10월중에도 소비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및 기업부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해 더욱 부진.
- 도소매판매의 경우 소매판매(2.7%)의 둔화에 따라 10월중 3.9%의 증가에 그쳐 3/4분기(4.1%)보다 더욱 위축.
- 내수용소비재출하의 경우도 내구소비재 증가의 둔화, 비내구소비재의 감소폭 확대로 0.5% 증가.

〈표 5〉 소비동향

단위 : 전년동기비(%)

	1996년	1997년 상반기	3/4	9월	10월
도소매판매	7.0	3.6	5.7	4.1	3.9
도매	4.3	3.3	4.2	2.6	5.8
소매	10.4	6.4	5.6	5.5	2.7
내수용소비재출하	5.9	-1.6	3.1	4.0	0.5
내구소비재	5.9	4.0	16.5	18.3	8.6
비내구소비재	5.9	-4.1	-2.5	-1.9	-3.1

자료 : 통계청

3. 투자

가. 설비투자

- 연초이래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는 경기침체국면의 지속과 향후경

전망과 정책과제

기에 대한 불안으로 3/4분기중 감소폭이 더욱 커짐.

- 운수장비투자(-12.2%)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제조업부분의 설비투자 감소로 기계류투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3/4분기중 설비투자는 13.0%나 감소.
- 10월에 들어서도 국내기계수주(1.2%), 기계류수입액(-28.4%), 기계류내수출하(6.4%) 등 투자관련지표들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등 설비투자위축현상은 4/4분기중에도 지속되고 있음.

〈표 6〉 설비투자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9월	10월
설비투자	15.8	8.2	-1.6	-1.5	-13.0		
기계류	22.6	9.8	-0.4	0.4	-13.3		
운수장비	1.5	4.3	-5.4	-7.0	-12.2		
국내기계수주	15.8	14.3	1.9	3.2	2.8	4.7	1.2
공공	3.3	16.0	6.9	4.1	27.1	98.9	18.8
민간	19.2	13.9	0.4	2.8	-0.8	-7.3	-1.2
(제조업)	20.8	11.9	-3.4	0.7	-2.7	-11.3	-3.9
기계류수입액	27.0	12.7	-9.1	-15.4	-18.3	-4.6	-28.4
기계류내수출하	21.4	12.4	3.6	6.9	2.1	-0.1	-6.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나.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전력, 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공업용, 상업용 건물건설의 부진으로 2.1% 증가에 그침.
- 그러나 10월중에도 국내건설수주(50.5%)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건축허가면적(12.7%)도 증가세로 반전되는 등 4/4분기 건설투자는 비제조업부문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7〉 건설투자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9월	10월
건설투자	8.7	6.3	-0.9	1.1	2.1		
건물건설	10.7	0.2	-5.0	-1.8	-3.4		
기타건설	5.8	16.1	8.4	5.2	9.7		
국내건설수주	21.2	21.4	36.6	33.4	-3.6	39.3	50.5
공공	17.6	44.7	49.6	9.3	-7.5	31.5	36.4
민간	23.2	9.1	27.3	25.8	-10.7	33.7	58.5
(제조업)	72.9	-9.4	19.5	-19.5	37.3	-35.7	-31.2
건축허가면적	1.0	-3.0	-3.4	5.4	15.1	-26.5	12.7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4. 대외거래

가. 수출입

- 2/4분기 이후의 수출증가세가 지속됨.
 - 3/4분기중 통관기준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철강, 기계류 등 중화학제품의 호조로 높은 신장세(16.1%)를 보인 반면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
 - 10월과 11월중에는 기아사태로 인한 수출차질로 자동차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섬에 따라 전체수출 증가세 둔화.
- 수입은 자본재 및 소비재를 중심으로 감소폭이 점차 확대.
 - 자본재의 경우 경기침체에 따른 설비투자부진으로 3/4분기 15.9% 감소, 10월 13.2% 감소, 11월 22.8% 감소하여 점차 감소폭이 확대됨.
 - 소비재의 경우도 소비위축으로 3/4분기 6.5% 감소, 10월 14.4% 감소, 11월 17.98% 감소하여 점차 감소폭이 확대됨.

〈표 8〉 수출입 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6년	1997년 1/4	2/4	3/4	10월	11월	1-11월
수 출	3.7	-5.7	7.2	16.1	5.8	5.3	5.7
중화학제품	7.5	-8.5	9.4	18.7	6.1	23.4	7.0
경공업제품	1.0	0.7	1.9	0.7	6.1	-5.6	1.3
수 입	11.3	3.9	0.7	-3.8	-7.0	-11.7	-1.7
원자재	10.2	8.7	0.5	7.5	-0.1	2.9	4.8
자본재	10.0	-3.0	2.8	-15.9	-13.2	-22.8	-7.8
소비재	21.2	5.2	-5.0	-6.5	-14.4	-17.9	-4.7

자료 : 통상산업부

나. 국제수지

-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하면서 10월까지의 경상수지적자(132억 달러)가 전년동기(198억 달러)보다 약 66억 달러 개선.
- 수출호조, 수입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가 크게 개선되어 3/4분기중에는 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0월에는 거의 균형수준을 시현.
- 무역외수지는 운수서비스수지 및 투자수익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함에 따라 3/4분기와 10월중에도 적자규모가 지난해 수준을 상회함.
- 종합수지는 경상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수지흑자가 크게 줄면서 10월까지 44억 달러 적자.

〈표 9〉 국제수지

단위 : 억 달러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10월	1-10월
경상수지	-89.5	-237.2	-74.2	-27.8	-21.7	-6.8	-132.0
무역수지	-47.5	-153.1	-54.1	-6.9	0.4	-0.1	-60.7
무역외수지	-36.4	-76.4	-17.8	-19.6	-21.6	-6.6	-65.6
이전수지	-5.6	-7.7	-2.3	-1.3	-2.1	-0.1	-5.8
자본수지	134.2	170.3	47.8	58.4	18.5	0.9	123.6
종합수지	30.3	-56.7	-39.4	28.6	-21.6	-11.6	-44.0

자료 : 한국은행

5. 물가

- 경기수축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그리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으로 전반적으로 물가는 안정추세.
- 1-11월중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는 전년말월대비 각각 2.5% 및 4.3%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른세가 둔화.
- 그러나 급격한 원화절하의 영향이 국내물가에 반영되면서 3/4분기보다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생산자물가는 3/4분기의 2.7%에서 11월중 2.9%로 소비자물가는 4.0%에서 4.3%로 높아짐.

〈표 10〉 물가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10월	11월
생산자물가	4.7	3.5	3.7	3.8	2.7	2.1	2.9
농림수산물	3.9	4.1	2.1	2.0	1.8	-2.6	3.0
공산품	4.9	3.5	4.1	4.1	2.6	2.5	2.8
소비자물가	4.5	4.9	4.7	4.0	4.0	4.2	4.3
농축수산물	2.9	4.2	3.5	2.1	4.3	5.5	5.0
공업제품	2.6	5.0	5.1	4.2	2.9	3.0	3.4
서비스	6.8	5.2	4.8	4.6	4.8	4.7	4.8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6. 통화금융

가. 통화

- 올들어 통화추이를 보여온 통화공급은 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통화공급 확대로 11월중 전월보다 증가.
- MCT와 M2는 11월중 증가율이 전월보다 증가했으며 총유동성(M3)은 이미 3/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

전망과 정책과제

〈표 11〉 주요 통화지표를 추이

단위 : 평균기준 전년동기비, %

	1995년	1996년	1997년 1/4	2/4	3/4	10월	11월
M2	15.5	16.2	19.5	19.3	19.0	18.0	18.5
MCT	21.0	21.7	18.2	15.3	14.3	13.1	13.3
M3	19.9	19.0	17.3	15.8	16.1		

자료 : 한국은행

나. 시장금리

- 그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11월 이후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증폭되면서 12월 들어 법정상한선(25%)을 상회.

〈표 12〉 주요 시장금리와 부도율

단위 : 기간평균, 연%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10월말	11월말	12월 10일
콜금리(억일물)	12.4	12.7	11.9	12.2	12.3	13.1	12.4	24.9
회사채	13.8	11.9	12.3	12.1	12.1	12.6	15.1	25.5
어음부도율(전국, 금액)	0.20	0.14	0.23	0.23	0.25	0.31	0.43	

자료 : 한국은행

다. 환율

- 10월 하순부터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한 환율은 종금사 및 국내은행의 외화자금난 심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순유출 지속 등으로 11월 중순이후 큰 폭의 상승세 지속.

-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 및 정부의 IMF자금지원 신청결정이후에도 꾸준한 오름세.
- IMF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외환시장에서의 외화수급 불균형이 계속되면서 환율은 급등.

〈표 13〉 원화환율 추이

	1995년	1996년	1997년1/4	2/4	3/4	10월	11월	12월 10일
원/달러(기말)	774.7	844.2	897.1	888.1	914.8	965.1	1,163.8	1,423.6
변화율(전년말비)	-1.8	8.9	6.3	5.2	8.3	14.3	37.9	68.6

자료 : 한국은행

- 또한 환율방어와 금융기관 외화결제외 가용외환보유액이 급감한 것도 환율 급등의 원인.
-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2백 44억 달러이며 국내은행 해외점포 예치금을 제외한 가용외환보유액은 72억 6천만 달러임. 10월의 2백 23억 달러에서 1백 50억 4천만 달러가 감소된 수준.

전망과 정책과제

〈표 14〉 외환보유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1996년말	1997.3말	5월말	7월말	9월말	10월말	11월말
외환보유액	334.4	291.5	319.0	336.7	304.3	305.1	244.0
해외점포예치금	38.2	80.1	80.1	80.1	80.1	80.1	169.4
기타(태국과의 스와프거래)	-	-	-	-	-	2.0	2.0
가용외환보유액	294.2	211.4	238.9	256.6	224.2	223.0	72.6
거주자의화예금잔고	14.9	43.9	23.7	27.5	37.3	47.1	

자료 : 한국은행

제 2 장

해외경제

1. 성장 및 교역

가. 개 황

- 아시아의 통화위기는 세계경제성장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 영향은 적을 것임.
-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은 세계생산량의 22.5% 차지
- 통화위기에서 제외된 중국, 인도를 빼면 세계GDP의 7.3% 차지
- 구매력 평가에 의한 세계적인 생산량은 1997년과 1998년에 3.5%정도의 팽창이 예상
- 북미경제성장의 강세가 예상됨.
- 미국과 캐나다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 인플레이 방지를 위해 연준(FRB)이 이자율을 상승시켜 1997년의 3.6%의 경제성장 이후 1998년에서 2002년에는 좀 더 안정적인 2.3%~2.5%로 낮아질 전망

전망과 정책과제

- 일본에서의 재정긴축의 영향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것으로 보임. 재정긴축으로 회복이 늦어질 전망
- 실질GDP성장률이 1997년에는 0.8%, 1998년에는 1.9%로 전망
- 아시아경제의 통화위기로 인해 순수출에 의한 회복의 기미가 다소 위축될 위험이 있음.
- 유럽대륙에서는 내수증가가 수출경쟁력을 회복시켜 수출주도의 성장을 보임.
- 영국에서는 내수가 지속적으로 팽창
- 서유럽의 실질GDP성장률은 1997년 2.5%에서 1998년 2.7%로 높아질 전망
- 멕시코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이 1998년에는 무역적자폭이 줄어들고 저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

나. 미 국

- 1997년 하반기의 성장은 상반기의 성장보다는 낮을 것이나 평균적으로 3% 예상. 실질 GDP성장률은 1997년 3.6%에서 1998년~2002년에는 좀 더 안정적인 2.3%~2.5%로 전망
- 소비자물가는 1997년 2.4%에서 1999년 2.9%로 전망
- 연준은 1998년에 단기이자율을 상승시킬 예정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대부분 감소하여 25년 동안 적자재정을 운영해 왔으나 이후에는 작게나마 흑자 재정을 운영하리라 예상됨. GDP에 대한 정부부채비율은 2002년에는 확연하게 줄어들 전망

다. 일본

- 3/4분기에는 실질GDP성장률이 5.3%(계절조정된 연율)로 예상되고 소비지출이 4.7%(계절조정된 연율)로 상승하여 경제회복의 기미가 억제될 전망
- 실질GDP성장률은 1997년에는 0.8%, 1998년에는 1.9%, 1999년에는 2.8%로 증가가 예상됨.
- 소비지출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엔화의 약세에 의한 수출호조와 상대적으로 위축된 내수로 인하여 지속적인 무역이익이 예상
- 공공투자와 주택건설은 지속적인 위축이 예상

라. 유럽

- EU의 15개 나라들의 실질GDP는 1/4분기와 2/4분기 사이에 1.3% 증가했는데 이는 이 전기보다는 빠른 성장. 2/4분기의 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와 전기대비 1.3% 증가로 미국의 증가율(3.4%)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
- 3/4분기에도 성장분위기가 지속되며 수출호조와 더불어 내수 회복
- 영국, 덴마크, 스웨덴, 그리이스를 제외한 11개의 EU 국가들은 1999년 1월 1일에 EMU에 가입할 것으로 보임.

전망과 정책과제

〈표 15〉 세계경제전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성 장>						
세 계	2.3	2.8	3.0	3.0	3.3	3.3
미 국	2.0	2.8	3.6	2.5	2.4	2.3
일 본	1.3	3.7	0.8	1.9	2.8	2.6
독 일	1.9	1.4	2.4	2.8	2.7	2.7
중 국	10.5	9.7	9.1	9.2	8.9	8.6
선진국	2.1	2.5	2.6	2.6	2.6	2.5
서유럽	2.5	1.8	2.5	2.7	2.8	2.5
태평양연안국	7.7	6.6	5.3	5.1	6.0	6.2
<교 역>						
교역량	9.8	6.0	9.6	7.3	6.7	6.4
단가	8.8	-2.1	-6.3	0.5	2.7	2.7
<가 격>						
원유(\$/배럴)	17.2	20.4	19.6	19.2	19.8	20.3
<국제금리>						
LIBOR(3개월)	6.0	5.5	5.7	6.2	6.4	6.2
미국(CD3개월)	5.9	5.4	5.6	5.9	5.8	5.6
일본(")	1.2	0.6	0.6	1.4	3.2	3.6
독일(FIBOR)	4.5	3.3	3.2	3.9	4.8	5.3
<환 율>						
¥/\$ (평균)	94.1	108.8	119.9	116.5	112.0	108.5
DM/\$ (평균)	1.43	1.50	1.74	1.73	1.69	1.65

주 : 원유가는 두바이, 영국 브렌트, 알라스카산 원유의 평균가격.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11.

2. 원유 및 원자재가격

가. 원유

- 올해 엘니뇨현상으로 인하여 예전의 겨울날씨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원유가는 안정적이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1996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WTI는 1997년 \$20.78에서 \$1.39 하락 예상.

〈표 16〉 분기별 원유가격전망

단위 : \$/bbl

년 도	1997				1998				1999				2000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가 격	21.18	18.51	18.22	19.79	19.36	18.09	18.75	19.54	18.33	20.30	19.99	19.73	21.70	18.26	18.01	19.09

주 : 미국 정유업자 도입가격기준

자료 : WEFA, Energy Service in Boston

나. 농산물

- 과거 2년간 곡물의 풍족치 못한 공급으로 가격의 상승과 재고의 감소가 야기되었으나 1997/1998년간에 출하될 곡물의 공급증가로 재고량의 증가예상
-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곡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1995/1996년보다는 낮음.

전망과 정책과제

- 종자유의 경우 제한적인 공급과 수요의 증대로 가격상승
- 원면생산은 93년이후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나 거래도 감소하여 가격상승의 압력은 없음.

다. 비철금속

- 알루미늄을 제외한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안정적인 하락이 예상됨.
- 3/4분기의 알루미늄에 대한 수요증가로 가격상승 예상
- 아연의 경우 1992년이후 수요의 감소에 의한 공급감소로 1997년 상반기에는 가격이 50%가량 상승하였으나 1997년 하반기 하락하여 1998년과 1999년에는 안정될 전망

〈표 17〉 주요 농산물 및 비철금속 가격전망

	단위	1996	1997	1998	1999	2000
원맥(U.S. No.1 HRW)	\$/부셸	4.84	3.76	3.54	3.42	3.31
옥수수(U.S. No.2 Yellow)	"	3.88	2.68	2.72	2.55	2.43
콩(U.S. No.1 북캐롤라이나)	"	7.45	7.36	6.02	5.83	5.89
동(LME, Cash)	센트/파운드	104.10	107.50	100.40	94.38	97.68
니켈(LME, Cash)	"	340.00	323.00	314.00	293.59	302.40
주석(페낭시장)	"	314.87	299.12	284.17	269.96	276.71
납(LME, Cash)	"	35.10	29.30	29.20	30.51	31.68
알루미늄(LME, 현물)	"	68.30	75.10	78.00	76.00	73.00
아연(LME, Cash)	"	46.50	64.80	66.80	62.00	58.00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7.11.

3. 주요통화 환율

- 2/4분기와 3/4분기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금융시장이 호조를 보인 반면,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경우는 고전. 동남아시아국가들은 환율과 주식시장이 통화위기로 혼미
- 일본의 경우 2/4분기의 낮은 GDP로 오랜 경기후퇴로 부터의 회복의 기미가 꺾임.
- 미국의 경우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1998년초까지는 금리인상이 없으리라는 예상이 우세
- EMU국가들의 환율을 독일의 DM/달러를 기준으로 결정
- EMU의 금리는 ERM중심금리로 결정
- DM/달러를 1997년말 1.75에서 1.70으로, 1998년말 1.72에서 1.68로 수정 전망
- EMU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가세
- 일본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지연과 미국경제의 견고한 성장세로 인하여 「달러강세·엔약세」의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1997년말 엔/\$환율은 130~135사이로 예상
- 일본의 대장성은 120엔/\$를 균형환율로 판단
- 일본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1998년중 연준에 의한 미국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존

〈표 18〉 동남아국가들의 환율추이

(기말기준)

	1995년	1996년	199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	774.7	844.2	861.3	863.9	897.1	892.1	891.8	888.1	892.0	902.0	914.8	965.1	1163.80
싱가폴\$/ \$	1.413	1.400	1.409	1.426	1.444	1.444	1.429	1.430	1.472	1.509	1.527	1.574	1.593
태국 바트/\$	25.16	25.60	25.96	26.01	25.94	26.07	24.85	24.70	32.90	33.70	34.80	40.40	40.35
말레이시아 링기트/\$	2.541	2.527	2.487	2.480	2.476	2.510	2.510	2.523	2.633	2.834	3.240	3.410	3.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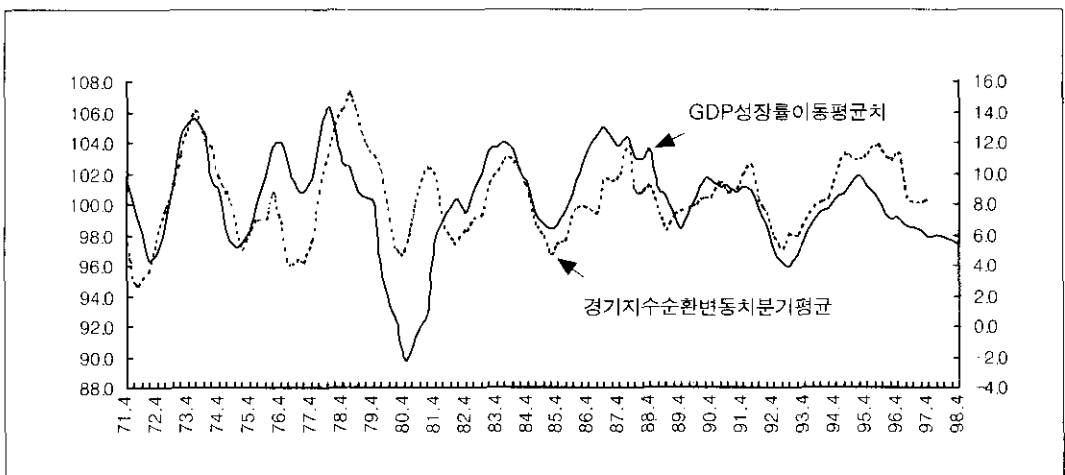
제 3 장

1997/1998년 경제전망

1. 성장

- 현재 우리경제는 1987년 하반기 이후 10년간에 걸친 장기적 경기하강국면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됨.
- 1989년과 1993년의 경기호전은 ‘주택 2백만호 건설’과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일시적인 확장국면.

〈그림 1〉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GDP이동평균치



전망과 정책과제

- 지난해(7.1%)에 이어 1997년중에도 실물부문의 경기수축이 지속된 우리 경제는 올해 6.0%, 그리고 IMF와의 합의에 따라 재정 및 금융긴축이 불가피한 1998년중에는 2.6%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 11월중 국회에서 통과된 1998년도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10%의 지출감소와 세수확대가 예상되고 1998년중 예상되는 외환유입에도 불구하고 본원통화와 총유동성(M3)의 공급 규모가 9%수준에서 묶임으로써 초기축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1997년 10월까지의 수출을 중심으로 한 실물부문의 경기회복조짐은 4/4분기 들어 급속한 금융, 외환, 주식시장의 붕괴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일시적으로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계량적 예측이 불가능해 짐.
- IMF와의 정책협의 결과에 따라 1998년 이후에도 실업률의 증가와 임금상승률의 하락 이외에 가계 및 기업의 심리적 위축이 겹쳐 설비투자과 소비를 포함한 내수는 급속한 위축 예상
- IMF의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된 뒤에도 한라, 고려증권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지속되고 최근에도 시중실세금리가 법정상한선을 넘는 등 금융시장불안이 증폭. 정부의 외자유입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과급과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는 경우 1998년에는 제로(0%)성장의 가능성도 상존
- 가능성은 적으나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지연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등 자산디플레이 현상이 가세하는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반면에 98년 1/4분기중 외환유동성 문제가 해소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는 경우, 98년(A) 성장률은 2.6% 내외에 이어, 99년에는 4.8%로 예상되는 등 2년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00년에는 5~6%의 성장궤도 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표 19〉 1997/1998 경제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 %

	1996년	1997년	1998.1	1998.2	1998.3	1998.4	1998년(A)	1998년(B)	1999년
국내 총생산	7.1	6.0	3.7	2.6	1.8	2.3	2.6	0.4	4.8
(제조업)	7.4	7.1	4.7	2.7	2.1	3.4	3.2	1.1	5.4
총소비	6.9	4.9	2.7	1.8	1.5	1.5	1.8	0.9	3.8
민간소비	6.9	4.7	3.1	2.0	1.7	1.7	2.1	1.0	3.8
고정자본형성	7.1	-2.5	-6.4	-5.3	-6.2	-6.9	-6.2	-10.6	3.1
설비투자	8.2	-7.5	-10.3	-9.9	-7.0	-7.7	-8.7	-15.7	-0.5
건설투자	6.3	1.5	-3.1	-2.0	-5.7	-6.4	-4.4	-7.0	5.1
생산자 물가	2.7	3.1	2.7	3.3	4.5	4.6	3.8	3.5	3.2
소비자 물가	5.0	4.3	5.4	5.5	5.1	4.7	5.2	4.8	4.6
경상수지(억\$)	-237.2	-139.4	-33.5	-0.8	-7.0	8.4	-32.8	-17.4	3.0
무역수지(억\$)	-153.1	-54.2	-10.6	19.9	12.8	27.7	49.8	62.7	82.0
상품수출(억\$)	1283.0	1369.2	330.5	377.0	362.7	395.8	1465.9	1430.8	1,555.6
증가율	4.1	6.7	8.0	6.0	4.6	9.8	7.1	4.9	6.1
상품수입(억\$)	1436.1	1423.4	341.0	357.1	349.9	368.0	1416.1	1373.6	1,473.6
증가율	12.2	-0.9	-5.3	-1.5	1.3	3.6	-0.5	-3.5	4.0
무역외&이전(억\$)	-84.1	-85.2	-22.9	-20.7	-19.7	-19.3	-82.6	-80.1	-79.0

주 : 1) 1998(A)는 현재의 금융위기가 1998년 1/4분기내에 수습될 경우, 1998(B)는 1998년 2/4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가정한 전망

2) 1999년은 1998(A)를 연장한 전망

- 부문별로 보면, 원화의 큰 폭 절하에도 불구하고 내년 수출 증가율은 국제수지 기준으로 올해에 이어 한자리 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내수부문은 소득증가의 감소, 기업투자감소, 재정지출의 둔화로 급격한 위축이 예상.

전망과 정책과제

- 수출의 경우 원화가치의 하락에 힘입어 1997년보다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나 1997년중 동남아국가들의 환율이 대폭 절하되었으며(수출단가 하락지속) 성장세가 미약할 일본 및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1997년에 이어 한자리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 소비부문은 경기침체, 고용불안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데다 임금상승률 둔화, 주식 및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구내력의 감소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1998년중 민간소비 증가율은 2.1%의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의 경우 기업 채산성의 악화, 향후 경기의 불투명 등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크게 위축된데다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의 구조조정노력이 겹침에 따라 큰 폭의 감소(-8.7%)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표 20〉 30대 그룹의 국내시설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전년비 증감률, %

1996년 실적	1997년 실적(추정)	1998년 계획
27.0	5.9	-1.4

자료 : 전경련(1997.11)

- 사회간접시설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토목 등 기타건설부분이 경제전반에 걸친 건축기조 영향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위축에 따른 자금조달의 어려움, 자재 등 건설원가의 인상으로 건물건설의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 투자 전체로는 4.4% 감소 전망.

2. 물가

- 199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7년보다 높은 5.2%가 예상
- 내수부진으로 수요압력이 낮고 국제 원자재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IMF의 거시경제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강력한 긴축기조의 경제운영 등의 영향으로 물가상승압력은 낮음.
- 그러나 최근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인상 등 원화절하의 효과가 국내물가 전반에로의 과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물가는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적정환율을 초과하는 현재와 같은 환율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의 경험에서 보듯이 국내물가는 두자리수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음.

3. 국제수지

- 1997년 50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무역수지는 1998년중 50억 달러의 흑자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임. 이는 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경기침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자본재와 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입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1998년 수입(-0.5%)은 1997년에 이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수출은 원화환율의 상승 효과가 내년으로 이어지면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경쟁국 환율의 절하로 인해 경쟁력회복이 반감되었을 뿐 아니라 최

전망과 정책과제

근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동남아,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수출증가율의 큰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의 대폭 개선과는 달리 무역외 및 이전수지의 적차추이는 1998년중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단기외채에 대한 이자지급의 증가로 투자수익의 적자가 예상되나 여행수지의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무역외수지는 1997년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임.
- 1998년중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의 흑자전환에 힘입어 33억 달러로 예상되어 1997년보다 약 65억 달러 개선

4. 금리 및 환율

가. 금리

- 내년중 긴축통화정책이 불가피함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서 18~20%의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인플레이션 목표를 5%이하로 설정하고 이 목표치에 맞게끔 총유동성(M3)을 줄여 나가는 통화긴축정책을 요구
- 1998년중 시장금리는 통화긴축으로 상반기에는 20%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중 금융시장의 불안이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18%수준으로 조정될 예정

나. 환율

- 외화수급 불균형으로 환율이 연일 폭등하면서 원화환율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원화의 적정환율은 11월말 현재 1,068원/달러. 12월 이후에도 교역상대국의 대미달러 환율의 절하가 지속됨에 비추어 1998년 하반기중 실질실효환율은 1,100~1,200원/달러로 추정됨.
- 이는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치권의 잠음 등으로 대외신인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향후 환율은 현재의 위기를 가져온 대외신인도의 회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전망
 - 현재의 환율은 경상수지 개선으로 외화수요압력이 감소될 것으로 보여 절상추세로 반전될 가능성
 - 대외신인도의 조기회복을 통해 외국인주식투자 한도의 추가 확대, 회사채 등 채권시장 개방 등으로 외화유동성부족이 해소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적정수준으로 수렴해갈 것으로 전망

제 4 장

IMF합의하의 경제운영 및 정책방향*

1. 거시경제

가. IMF합의사항

- 합의된 내용 및 IMF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외채규모(1997년 11월말 현재 1,196억 달러)는 수출에 의한 외환수입과 비교할 때 적정하며, 향후 2년간 저성장 후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의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함. 이에 따라 IMF는 거시경제 운영의 주안점을 수출내 수입을 진지함으로써 가용외환보유고를 늘려가는 데에 두고,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목표를 설정함.
- 경상수지 : 적자규모를 1998~1999년중 GDP의 1%(내부보고서에 의하면 0.5%) 이내로 유지
- 물가 : 물가(CPI)상승률을 5% 이내로 유지

* 위 내용은 본원이 작성한 「IMF금융체제하의 새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발췌, 요약한 것임.

전망과 정책과제

- 성장 : 경제성장률(GDP)은 1998년 3%(IMF내부보고서에 의하면, 1998~1999년중 2~5%의 저성장 이후 2000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회복예상) 후 점진적 회복 예상
- 이같은 거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면에서의 긴축기조 강화와 금융 및 기업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재정 : 세수증액과 세출삭감 등을 통해 재정규모의 10%정도(약 7조원)의 재원을 마련, 구조조정과 관련한 재정이자부담과 성장감속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처
- 금융 : 외자도입을 감안한 본원통화와 총유동성(M3)의 증가를 9% 수준에서 억제함으로써 물가상승을 5% 이내에서 안정도모

나. 동향

- 1997년중에는 우리경제는 1996년에 이어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경상수지, 물가 및 성장면에서 안정적 축소균형과정에 있음.
- 경상수지는 1996년의 절반수준인 130억 달러 내외
- 물가는 지난해의 원화절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안정된 4.3% 내외
- 성장은 1995년 이후 감속중이나 6% 내외로 예상
- IMF지원 결정 이후 외환시장은 다소 안정화경향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기업부도와 금융경색이 지속됨으로써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
- 긴급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환율이 1,200원/\$ 내외에서 일시적 안정을 보였으나 엔화약

세에 따라 다시 절하되는 등 외환시장은 여전히 불안요인 상존

- 금융시장은 금융긴축강화예상과 종금사 영업정지로 부도가 다시 증가하고 실세금리가 법정상한선에 접근하는 등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한라그룹과 고려증권 등 기업부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은 30%의 기구축소, 현대는 40%의 설비투자감축을 발표하는 등 기업투자심리가 급속히 악화

다. 전망

1) 세계경제

- 세계경제는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에 도 불구하고 2000년까지 중기적인 확장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통화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국가의 세계GDP비중은 7.3%(아시아개도국은 22.5%이나 인도, 중국 제외)에 불과함으로써 중기적인 세계경제의 성장기조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하지 않을 전망
- 북미대륙은 미국이 1997년을 정점으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겠으나 향후 5년간 2.3~2.5% 정도의 지속적인 안정성장 예상
- 유럽대륙은 내수증가가 경쟁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수출주도로 1998년중 성장률이 1997년보다 높아질 전망
- 다만, 일본은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둔화와 재정긴축의 효과로 본격적인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1998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1.5% 내외로 전망

전망과 정책과제

- 1998년중 해외원자재가격은 일부 비철금속을 제외하고는 하락세 예상
- 엘니뇨현상으로 따뜻한 겨울이 예상되므로 유가안정 가능성이 크며, 1997/1998년의 곡물공급도 증가 예상
- 알루미늄은 수요증가로 강세이나 여타 비철금속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 예상
- 일본의 금리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금리의 인상 가능성은 상존하나 1998년 초까지는 실현가능성이 적음.
- 엔화약세는 단기적으로 130~135엔/\$선에서 유지될 전망
- 일본의 국채발행 또는 보유채권매각 등이 조기 실현될 경우, 미국금리 상승과 엔화절상의 가능성

2) 국내경제

- 축소균형과정에 있는 국내경제는 IMF와의 협의에 따른 거시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긴축기조의 경제운영으로 1998년 3% 미만, 1999년 4.8%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 및 실물부문의 급속한 구조조정과정에서 기업 투자심리가 지나치게 악화되는 경우, 1998년중 0 성장에 그칠 가능성 상존
- 현재의 금융의환위기가 원만히 수습되어 1998년 1/4분기 이후 고금리가 수그리드는 경우, 우리경제는 수출신장을 중심으로 2.6% 내외의 성장 가능
- 이 경우, 경상적자는 GDP의 1%, 실업률은 3.8% 내외로 전망

- 금융구조조정기간이 장기화하고 기업이 지나친 심리위축(Overkilling)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설비투자가 1996년대비 15% 이상 감소함으로써 0 성장에 그칠 가능성
- 가능성은 작으나 주식시장의 안정화가 지연되고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는 등 자산디플레이 현상이 가세하는 경우,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할 전망

라. 대응방안

- IMF처방의 핵심은 총투자-총저축간의 격차를 줄여 경상수지를 균형화하는 것이므로 유동성공급제약하에서 건축재정과 기업투자축소가 불가피하나 우선순위조정과 투자효율화를 통하여 투자축소로 인한 성장력 약화를 최소화해야 함.

1) 기업의 대응방안

- 기업은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사업구조 및 기업내 경영구조 개편을 조기에 마무리
- 1996~1997년간 50% 절하된 원/달러환율하에서 수출확대에 힘쓰되, 제값받기에 주력함으로써 채산성 확보와 현금흐름 정상화 도모.
- 3% 성장하에서도 제조업의 물적 생산증가는 4~5%에 달할 것이므로 중기적으로 성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설비투자의 지나친 감축 자제
- 지난 2년여에 걸친 경기수축과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설비가동률은 80% 내외로 향후 설비능력의 증가가 없다면, 잠재성장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년도(2000년)에는 설비가동률 90% 상화가 불가피해 공급애로부문 발생 가능

2) 정부의 대응방안

- 정부부분의 지출은 고비용요인 해소의 관점에서 집행하되, 불류비용축소를 위한 투자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상경비의 축소에 힘쓸 것
- 세수확대를 위하여 세율인상과 목적세를 활용하기 보다는 기존 세율체계하에서 면세점 인상과 과세대상확대 등을 통한 세수기반확충에 주력
- 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재정소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영화대상 국영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국채의 해외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을 활용
-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및 금융구조조정의 조기완료

2. 통화 · 금리

가. IMF 합의사항

- 통화정책은 긴축운용을 기본으로 하여 통화량증발을 최대한 억제
 - 최근 대규모로 공급된 유동성은 즉시 환수될 예정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이를 용인
 - MCT 증가율을 11월중 13.3%에서 12월중 13%수준으로 억제하고, M3 증가율을 9월중 16.4%에서 12월중 15.4%로 줄임
 -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18~20%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며 일시적으로 법정한도인 25%까지 오르더라도 용인

- 19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
 - 중심통화지표도 MCT에서 본원통화(RB)으로 전환하여 통화정책의 운용의 폭을 제한
 - 보조통화지표는 M2(총통화)에서 M3(총유동성)으로 변경
- 통화관리방식을 ‘금리와 환율을 감안하는 종합관리’에서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단순한 통화량 중심’으로 전환
-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외환보유고(reserves)의 증가를 통화관리목표로 설정. 금리나 환율상승에 관계없이 외환보유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원통화를 조절

나. 동향

1) 통화

- 신용경색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통화공급확대로 11월중 통화량증가율은 전월보다 증가
- 11월중 MCT 증가율은 전월의 13.1%에서 13.3%로, M2 증가율은 전월의 18.0%에서 18.5%로 각각 상승

〈표 21〉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기대비, %)

	1996.4/4	1997. 1/4	2/4	3/4	9월	10월	11월
MCT	20.0	18.2	15.3	14.3	14.1	13.1	13.3
M2	8.3	19.5	19.3	19.0	20.1	18.0	18.5
M3	18.1	17.3	15.8	16.2	16.4	-	-

전망과 정책과제

2) 금 리

- 종금사의 자금사정악화 및 금융긴축예상 등으로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크게 상승
- 12월 2일 9개 종금사 업무정지의 영향으로 금융불안심리가 가중되고, IMF의 고금리정책요구 소식 등으로 CP 및 회사채 금리 폭등
- 콜금리는 11월 27일 이후 한은의 유동성 공급 확대로 회사채금리에 비해 3~4%p 낮았으나, IMF의 긴축정책요구로 12월 5일 이후 25%까지 급등

〈표 22〉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 : 연%)

	1997.9말	10말	11.26	11말	12.3	12.5
콜(익일물)	14.25	13.09	14.35	12.40	14.60	24.93
CP(91일물)	14.40	14.40	16.12	17.75	24.40	26.67
회사채(3년물)	12.60	12.60	13.30	15.10	18.74	19.19

다. 영향 및 전망

- IMF가 요구하는 통화긴축의 목적은 원화절하에 따른 불가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데 있음.
-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고금리정책이 취하고자 하는 것은 저축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감축을 유도하여 경상수지적자를 줄이는데 있음.

- 즉 저축과 투자간의 차이인 순저축을 증가시킴으로써 해외차입을 축소하고자 함.
- 이와 동시에 채권시장개방을 통하여 국내 고금리에 매력을 느낀 해외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 1998년중 시장금리는 IMF의 통화긴축으로 상반기에는 20%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중 금융시스템이 안정되면 18%수준으로 조정될 예상임.
- 1999년에는 위험프리미엄의 감소로 13~15%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0년에는 물가안정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11%대로 하향조정될 전망

〈표 23〉향후 금리 전망

(단위 : %)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회사채수익률	13.8	11.9	14.5	18-20	13-15	11.0
경제성장률	8.9	7.1	6.0	2.5	5.0	6.6
물가상승률	4.7	4.9	4.2	5.0	4.3	4.0

주) 1998년 이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은 IMF전망치

- 1995년 2월에 IMF구제금융을 받았던 Mexico의 경우 1995년중 금리가 50% 수준에 육박하여 위험프리미엄이 20% 가까이 상승
- 그러나 1996년이후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위험프리미엄은 거의 사라짐. 다만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물가상승률이 1996년중 34.4%에 이르면서 금리는 1996년중 31.4%에 달함. 1997년에는 물가상승률이 16.5%로 안정됨에 따라 금리도 20.3%로 하향안정

전망과 정책과제

〈표 24〉Mexico의 금리추이

(단위 : %)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국채수익률	15.0	14.1	48.4	31.4	20.3
경제성장률	2.0	4.5	-6.2	5.1	6.4
물가상승률	9.7	6.9	35.0	34.4	16.5

- 이러한 긴축통화·고금리정책은 정상수지적자문제를 단기간에 축소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것임.
- 반면 작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을 가속화시켜 국내경기를 극도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함.
-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금융공황에 따른 신용경색을 더욱 부채질하여 한계기업의 연쇄도산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까지 흑자도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따를 예상임.

라. 대응방안

1) 기업의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유동성확보에 주력
- 신규투자를 철회하고 경상비용을 감축하는 등 자금수요를 최대한 축소하고 부동산매각과 사업구조조정 등으로 차입을 축소
-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상업차관 허용폭이 확대되는 대로 해외차

입을 적극 활용

- 급속한 위축이 예상되는 내수시장보다는 원화절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해외시장 개발에 주력

2) 정부의 대응방안

- 단기금융, 예금, 국공채시장을 개방하여 해외자본의 조기유입을 유도
 - 채권시장을 조기개방하였듯이, 여타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개방일정을 앞당겨서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것이 급선무
- 수급불균형 발생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은 원활히 제공하여야 함.
 - 과도한 통화긴축운용으로 건설한 기업이 연쇄도산 하는 등 수급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은 적절하게 대처해야 함.
- IMF의 통화긴축처방의 부작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향후 정책협의과정에서 다소간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IMF와 조율해 나가야 함.
 - IMF의 긴축처방은 재정적자가 크고 통화증발이 많아 인플레이션이 높은 남미 등의 경제에는 적절할지 모르나 한국은 경제사정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IMF에 설득할 필요.
 - IMF의 긴축처방은 케인저안적인 정확적 접근법에 따른 방안으로써 공급측면을 무시하고 가격의 조정기능을 간과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함.

3. 금융시장

가. IMF 주요 합의사항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 1997.12.11일부터 1인당 및 종복당 한도 50% (종복당 투자 한도는 1998년 중 55%로 추가 확대)
- 회사채시장 개방 : 1997년 12.12일부터 대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해서는 1인당 및 종복당 한도를 정해 부분개방하고,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해서는 전면개방함.
- 단기금융시장 조기개방 계획
- 1997년 12월 16일부터 환동변동제한을 철폐하고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

나. 영향 및 전망

- 해외자본의 주식투자 : 해외투자자의 한국 정부나 기업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서 즉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합병 :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이 용이해지는 한편,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노력이 불가피해질 것임.
- 회사채시장을 통한 해외자본 유입 : 국내 경제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규모 자본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

다. 대응

- 기업의 자금조달 : 내부자금 확보 극대화. 외국 금융기관의 엄격한 신용평가, 여신심사에 대한 대비
- 기업의 구조조정 : 핵심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선별적 투자전략 수립. 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모색

-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 신속하고 효과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으로 불안심리를 조기에 불식
- 금융기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획기적 조치 필요
- 자본자유화 : 자본시장을 조속히 개방하여 금융·외환위기 수습 노력

4. 금융산업

가. IMF 주요 합의사항

- 부실 금융기관 정리(1998년 3월 종금사, 6월 은행, 9월 기타 금융기관)
- 1998년중 국내 금융산업 전면개방
- 금융개혁입법 연내 타결

나. 영향 및 전망

- 금융경색 장기화 전망 및 소형 금융기관 연쇄 도산 우려
- 1998년 6월까지 은행이 자구노력에 치중함에 따라 금융경색 지속
- 1998년중 국내 금융산업 전면 개방
- 기업대출 만기 불연장 및 회수 지속으로 기업의 자금난 가중

다. 대응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실 금융기관 조기 정리
- 정리금융기관(가교은행)을 통해 영업정지대상 금융기관의 업무 지속
- 특수은행에 “기업 흑자도산 방지창구”를 설치 기업에의 자금공급 확대

- 전 은행에 CP업무 허용 및 정부지분보유 은행의 CP업무 확대

5. 외환 시장

가. IMF 주요 합의 사항

- 신축적인 환율정책
- 2개월간의 수입을 지탱할 수 있는 외환 보유고의 적립
-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총투자한도 확대
- 상업차관 도입의 자유화 점진적 추진
- 단기금융시장 및 회사채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단계적 허용

나. 영향 및 전망

- 저리의 외자유입
- 국내외 금융시장에서의 기업자금 조달기회 확대
-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
- 주식 및 부동산 가격상승
- 단기성 핫머니의 유출입의 확대에 따른 거시경제의 불안정
-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금융 및 산업의 잠식

다. 대응

- IMF 합의사항 성실히 이행 천명으로 국제 신뢰도 조기 회복
- 국내 현실과 IMF 합의사항 간의 괴리에 대한 대국민 설득

- 상업차관도입에 대한 잔존 규제폐지
- 해외자금조달 기회확충에 대비한 기업의 대외신인도 제고
- 개방경제로 조기전환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관리체제 정비

6. 산업구조

가. IMF합의사항

- 긴축적 통화운영으로 물가상승률 억제
- 긴축적 재정정책기조 유지, 원유세, 특별소비세 인상, 과세기준확대와 제한적 범위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자본지출 삭감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선다변화제도, 규제적 수입허가제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증진
- 외국인주식매입한도 확대, 외국인의 국내 단기자금시장, 상품 및 회사채시장 투자허용,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제한철폐, 기업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완화
- 국제적 회계기준도입,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파산관련법률작동, 개별기업지원을 위한 각종지원과 세제혜택 폐지, 강제적 기업합병금지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나. 동향 및 전망

-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증세와 각종 세제지원감소에 따른 기업 수익성 감소, 통화긴축으로 인한 고금리와 투자위축, 강화된 시장경쟁원리작동은 자동차, 석유화학, 반도체, 철강 등 기반산업의 구조조정 및 대기업 그룹의 주력업종에 변화를 초래할 것임.

전망과 정책과제

- 자동차 :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아울러 수입다변화정책의 폐지,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일본 및 미국산 자동차 수입이 예상
 - 반도체 : 환율상승으로 인한 반도체장비수입가 상승, 자금난으로 인한 투자자금조달의 어려움, 상호지급보증해소과정에서의 자금난 등으로 투자난항
 - 철강 : 세계철강업계가 어려움에 직면, 현대의 제철사업투자가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논란예상
 - 건설업 : 사회간접자본 등 대형국책사업의 축소 불가피, 고금리로 인한 주택금융시장의 위축과 가계대출의 축소로 주택경기의 침체예상
 - 석유화학 : 과잉투자가 문제시되어 신규설비투자가 제약, 환율상승에 따른 원가부담증가와 수익성 및 수출경쟁력 하락
 - 조선 : 대규모설비증설, 조선경기의 침체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여 대형조선소간 인수합병 예상
-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 총액대출제한제도,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 계열화제도,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약화되고, 자유시장경제원리의 강화로 중소기업의 입지가 약화될 전망

다. 대응방안

- 기업의 주력기업육성, 경영권방어 장치마련, 재무구조의 개선노력 필요
- 정부의 진입퇴출장벽의 해소, 경영권방어 지원,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기업경영형태 개선유도 노력이 필요

7. 대기업정책

가. IMF 주요합의사항

- 자본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종목당 50%까지)
- 상호지급보증의 축소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나. 영향 및 전망

- 외국기업에 의한 인수합병M&A 증대
- 지급보증폐지로 차입규모의 축소 불가피
- 기업집단의 회계정보 노출

다. 대응

- 수익성중심으로 계열사를 정리하고 계열사간의 지분조정이 필요하며, 적대적 인수에 대비한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실시
- 채무보증해소와 차입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유동성확보에 최우선
- 계열사정리를 통해 그룹재무제표의 건전화를 유도하고, 투자자홍보(IR)를 강화

8. 무역정책

가. IMF 주요 합의사항

- 1차점검때 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다음사항을 추진할 일정을 수립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 등의 폐지
 - 수입증명 절차의 투명성 제고

나. 영향 및 전망

-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시장개방이 1-2년 앞당겨질 가능성 있음.
- 또한 내용도 훨씬 강화될 소지가 있음.
-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의 세계적인 과잉투자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
- 선진국들은 차제에 이들 산업에서 우위를 확보하려고 할 수 있음.
-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분야에서 장기적인 피해가 우려됨.

다. 대응

- 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 필요
- 특히 자동차분야의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들간의 협조 필요
-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함.
-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인 주장은 적극 수용
- 그러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
- 보다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함.
- 협상과정을 공개하여 국민과 기업의 협조와 이해 추구

- 우량기업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외국기업에 인수·합병되는 것을 방지

9. 재정 · 조세

가. IMF 주요 합의사항

- 통화관리의 부담을 덜고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긴축재정기조 유지
- 1998년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0.8% 정도 악화

나. 동향

- 국회에서 확정된 19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997년에 비해 4.0% 증가한 70조 2,636억원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GDP 대비 0.2% 수준의 흑자)
- 1998년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78조 8,247억원으로 편성(97년 예산 대비 6.5%, 전년대비 11.7% 증가한 수준)

다. 전망과 파급효과

-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 및 금융부문 구조조정을 위해 GDP대비 약 1.5%의 재정적자요인 발생 전망(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을 포괄하는 통합예산에서 약 7조 2,000억원의 세입증대 및 세출삭감 조치 필요)
- 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경상지출이 삭감
- 세입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의 세율 인상

라. 대응

- 일반행정비용의 절감이 우선되고 정부 조직의 축소와 개편이 병행
- 예산 재조정의 조기 완료
- 세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

10. 고용

가. IMF 주요 합의사항

-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강화

나. 영향 및 전망

- 정리해고의 조기 실시, 근로자파견의 합법화 및 계약제 고용의 확산
- 기업의 인수 합병 및 구조조정이 가속화됨
- 실업의 증가 및 고용불안에 따른 생산성 저하

다. 대응

- 인력관리의 합리화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
-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고용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의 확대 및 실업급여기간의 연장
- 직업안정 서비스 확충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규제완화
-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11. 정부의 대응자세

■ 정책 투명성 제고

- 대외신인도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서 정부통계의 투명성 제고
- 금융시스템 붕괴 및 기업도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과 확고한 시행

■ 위기관리 경제팀 운영

- 새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정권인수 및 위기관리를 위한 경제팀의 조기가동

■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감원

- 정부부문의 비효율성 제거와 민간부문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 조직축소와 인원감원 기능 조정
- 준정부 기능을 시행하는 정부 산하단체의 폐지 및 기능의 민간이양

■ 경부고속철도 등 전시성 국책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및 불요불급한 정부투자 축소

■ 규제개혁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 타개 및 관련개혁의 신속한 추진

- 금융, 토지, 공정거래, 통상, 외환 등과 관련된 각종 정책적 규제의 신속한 개혁

전망과 정책과제

- IMF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국내기업 및 노동자들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련정책의 전면적인 개혁
-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경제정책정보

주요경제통계

※ 경제정책정보 ※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12/1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상하10%의 일일환율제한변동폭의 완전폐지 - 그러나 일반인들이 달러를 매입할 때 기준이 되는 외국환은행의 대고객매매율은 전날 외환시장의 가중평균환율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제도를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시행 -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등을 최대한으로 지원, 촉진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시행
12/13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정유업계 지원방안의 수립 시행 - 최근 정유업계의 환율폭동에 따른 원유도입 차질 및 석유수급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시행
12/12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중소기업 기술지도 대폭 확대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 타개 및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주재 확대경제장관회의 개최 - 이날 회의에서는 IMF협약이후 경제 및 노동동향과 에너지소비 절감, 고용안정, 부동산 및 건설분야, 중소기업 경영안정대책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 IMF 후속조치 실무대책위원회는 IMF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향후 수시로 개최되어 IMF 후속조치의 수립집행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할 계획
12/1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대책반 설치 운영 - 정부는 IMF와의 정책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금융기관 해외점포 및 현지법인 등이 이용하고 있는 대외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점검하기 위하여 “IMF대책반”과 “대외채무대책반”을 설치하여 12월 10일부터 업무개시하였음

부록

일자	주부부처	주요 정책
12/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일은행, 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출자 - IMF와의 합의사항 이행과정에서 종금사 업무정지, 은행구조조정방안 발표 등으로 인해 야기된 금융시장의 불안울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제일, 서울은행에 각각 1조 1,800억원규모의 정부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기로 결정
12/6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증권주식회사 영업정지 - 12월5일 최종부도처리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에서는 12월 6일자로 고려증권주식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 그러나 영업정지기간중에도 고객예탁증권의 현물반환업무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하며 고객예탁금도 증권금융을 통해 지급예정
12/5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공공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함
	중소기업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자금 400억원 지원 - 98년1월5일~10일동안 공장등록증 보유 주식미상장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형식의 출연금으로써 98년도 중소기업청의 예산에서 400억원을 직접 개별 중소기업에 지원
12/4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요령 제정 -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지난 11월28일 제1회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에서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등이 확정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요령을 제정고시함
12/3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대책 기업의 대량 인력감축 자제를 유도하고 해고회피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실업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킴
12/2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정지 및 경영개선방안 - 잇따른 대기업 부도에 따라 종금사의 부실자산이 크게 증가하고, 상당수 종금사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취해짐

일자	주무부처	주요 정책
11/28	한국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27일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업공사내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생한 채권 2조원을 11월 28일자로 인수
11/25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자보호제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예금자에 대하여 97.11.19부터 2000년말까지 3년간 원리금전액의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보험기금의 확충을 위해 금융기관의 보험료 출연요율을 50% 인상키로함
11/21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5개 고용조정지원 대상업종 확정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는 97.10.1~99.3.31까지 최근 고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75개 업종의 3,180개 사업장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훈련, 인력재배치 등 고용조정지원을 함
11/1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율의 일일변동폭을 종전 상하2.25%에서 10%로 확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마련
11/14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스닥시장 개편 및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전용시장 개설 및 벤처기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97.12. 1(월)부터 시행
	통상산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지원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제정·공포
11/1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환관리법령집(97년 11월 1일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지간헐과 통화가치 안정도모를 위해 시행
10/19	재정경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시장 안정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신한국당은 10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근로자주식저축 가입금액 확대 및 가입기한 연장,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10%) 분리과세, 배당예고제도 도입, 기관투자자 익금불산입비율 확대(현행 80%에서 90%), 투신사의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한국통신의 DR배각보유 및 상장연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대책을 수립

부록

* 주요경제통계 *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 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US \$	전년 동 기 대 비 (%)				
1990	9.5	9.7	5,883	10.7	7.2	25.6	18.8	31.2
1991	9.1	9.1	6,757	9.5	8.5	12.6	12.1	13.0
1992	5.1	5.1	7,007	6.6	7.6	0.8	-1.1	-0.6
1993	5.8	5.0	7,484	5.7	3.0	5.2	-0.1	8.9
1994	8.6	10.5	8,467	7.6	4.2	11.8	23.6	4.5
1995	8.9	10.8	10,037	8.3	1.0	11.7	15.8	8.7
1996	7.1	7.4	10,548	6.9	7.1	7.1	8.2	6.3
1997. 1/4	5.5	5.7	-	4.4	4.6	-1.2	-1.6	-0.9
2/4	6.4	7.6	-	4.9	7.7	-0.1	-1.5	1.1
3/4	6.3	8.1	-	5.0	7.0	4.7	13.0	2.1

무역 국제수지

연 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 환율
	수출(FOB)		수입(CIF)		무 역	경 상	총 합		
	억달러	전년동기 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기말	
1990	650.2	4.2	698.4	13.6	-20.0	-21.8	2.7	148.2	716.4
1991	718.7	10.5	815.2	16.7	69.8	-87.3	-37.4	137.3	760.8
1992	766.3	6.6	817.8	0.3	-21.5	-45.3	49.0	171.5	788.4
1993	822.4	7.3	838.0	2.5	18.6	3.9	65.4	202.6	808.1
1994	960.1	16.8	1,023.5	22.1	-31.5	-45.3	28.2	256.7	788.7
1995	1,250.6	30.3	1,351.2	32.0	-47.5	-89.5	30.3	327.1	774.7
1996	1,297.2	3.7	1,503.4	11.3	153.1	-237.2	-56.7	294.2	844.2
1997. 1/4	297.2	5.7	370.6	3.9	-54.1	-74.2	-39.4	211.4	897.1
2/4	355.5	7.1	373.5	0.7	-6.9	27.8	28.6	253.1	888.1
3/4	344.4	16.4	356.9	3.8	0.4	-21.7	-21.6	224.2	914.8
10월	125.8	6.2	126.0	-7.0	0.1	6.8	11.6	223.0	965.1
11월	119.6	4.9	116.9	12.5	7.2	6.0	-	72.6	1423.1

주 :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 실업, 이자율

연 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기간평균	기간평균	
1990	42(7.2)	8.5(9.4)	2.4	20.2	21.2	27.6	16.5	747.0
1991	4.7(1.9)	9.3(9.2)	2.3	16.9	18.6	24.5	18.9	657.1
1992	2.2(1.6)	6.3(4.6)	2.4	15.7	18.4	24.7	16.2	587.2
1993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	2.7(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 5	3.7	3.8	2.5	13.1	19.0	15.2	12.2	713.1
6	3.9	4.0	2.3	5.5	18.1	14.8	11.7	765.2
7	2.6	3.7	2.2	2.7	17.8	14.5	11.9	752.3
8	2.7	4.0	2.1	8.7	19.1	14.4	12.1	740.5
9	2.6	4.2	2.2	-	20.3	14.6	12.4	676.5
10	2.1	4.2	-	-	18.0	13.1	12.5	584.1
11	2.9(2.5)	4.3(4.3)	-	-	18.5	13.3	-	-

주 : 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균기준

산업활동

연 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년가동 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 수주	건축허가면적		
								전체	공업용	주거용
전년동기대비(%)										
1990	8.9	78.3	12.4	15.3	38.8	34.0	55.8	31.4	17.0	49.3
1991	9.6	79.5	8.7	11.3	2.2	19.0	22.0	9.7	6.7	-16.7
1992	6.0	78.3	5.5	5.3	-5.2	10.6	9.0	10.0	-12.4	-7.4
1993	4.1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	11.1	81.3	8.0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	12.0	81.0	7.8	7.4	15.8	27.0	24.4	1.0	3.3	-1.2
1996	8.3	81.4	7.0	5.9	14.3	12.7	21.4	-3.0	13.2	-2.5
1997. 5	4.8	79.0	4.2	-3.1	8.0	-13.8	5.0	15.8	33.7	23.3
6	12.0	78.6	3.8	2.2	-0.1	-13.5	48.6	-5.1	-14.5	-10.4
7	8.5	79.5	4.9	0.8	5.4	-20.1	-3.1	-17.5	-22.9	10.0
8	9.9	79.9	5.5	4.4	-1.4	-25.8	-31.6	4.0	-31.0	12.9
9	10.1	79.4	4.1	4.0	4.7	4.6	39.3	26.5	-53.5	-20.9
10	12.2	79.3	3.9	0.5	1.2	-28.4	50.5	12.7	0.4	23.2

주 : 4)내수용 5)내수용, 선박 제외 6)선박 제외